

광주 프로축구단 창단 박차

■ 시민주 공모

시민과 함께하는 '축구도시' 만든다

오는 11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2010년 월드컵대회와 함께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광주FC)의 '태동'이 본격화된다. 광주시와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전국민적인 월드컵 열기를 모아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 창설의 밑거름이 될 시민주 공모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프로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이 없는 지역 현실에서 축구단의 창단과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대전 시티즌·대구 FC·인천 유나이티드·경남 FC·강원FC 등 5개 구단은 시민주 공모를 통해 수십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이로 인해 이들 구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구단'으로 거듭났다.

프로축구단 창단 비용 어떻게

광주FC의 창단에 소요되는 금액은 자본금 37억원과 창단비용 13억원 등 모두 50억원이다. 또, 2011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는 선수 인건비·훈련비·사무국 운영비 등 모두 75억원에 이른다.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은 코치 6명, 선수 37명 등 선수단 43명과 사무국 14명을 포함해 모두 57명 규모로 운영되며, 매년 70억원 이상이 운영비로 쓰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시비로 매년 10억원에서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비용은 민간기업 지원 및 광고, 시민주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은 지난 달 19일 17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총회 및 제1차 이사회에서 창단자본금 9억5000만원을 마련하고, 이어 지난 27일 제1차 임시주주총회와 제2차 이사회를 갖고 시민주 공모를 위한 신주발행을 가결했다. 시민주 1주의 가격은 5000원.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은 1단계로 오는 11일부터 40일 동안 19만9100주(9억9550만원) 공모에 나선다.



지난 3월 14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스페인 K리그 2010 광주 개막전 전경. 이날 개막전 경기로 치러진 광주 상무와 포항 스틸러스 전에는 2만2000여명의 관중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달 12일 월드컵 16강 기원하며 공모 시작 인천, 창단 3년만에 '흑자'...코스닥 상장 추진

1단계 공모의 첫 시작은 16강 진출을 위해 12일 오후 4시30분부터 그리스와 맞붙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응원전이 열리는 광주시 서구 월드컵경기장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날을 '시민주 공모 청약의 날'로 지정하고,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관계자,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각급 기관장, 공무원·시민 등 3000여명이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동시에 시민주 청약을 시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직접 시민주 청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청약금도 받게 되며, 경기 이후에는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17일 아르헨티나전과 22일 나이지리아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시민주 공모가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시와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은 1단계 공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단계로 10억원 이상 대규모 자본증자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다른 지역 시민구단은

시민구단으로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인천 유나이티드는 연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할 정도로 성장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상장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 구단의 주식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프로스포츠구단 사상 처음으로 증시에서 거래된다. 인천유나이티드는 2003년 시민주 공모를 통

해 165억원의 창단 자본금으로 출범했으며, 창단 3년 만에 국내 프로구단 사상 처음으로 경영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 179억원, 영업이익 7억원, 순이익 8억원을 기록했다. 유니폼 광고 등 광고매출이 총 매출의 80%를 넘을 정도로 탄탄한 재정구조가 장점이다. 지분율은 최대주주인 인천광역시체육회가 10.2%로 최대주주이며, 소액주주 68.96%, 기타주주 20.84% 등이다. 4만7000여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 같은 시민 참여로 GM대우, 한화건설 등이 후원과 스폰서 계약 등을 통해 한 해 수 억원에서 2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FC의 성공적인 출발은 시민이나 지역기업들이 얼마나 시민주 공모에 참여하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시·도민구단들 역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바탕으로 기업 후원과 광고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당시의 홍보에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창단을 앞두고 성공적인 시민주 공모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달 27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센트럴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송기진 광주은행장,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광주FC 대표이사),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행자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광주FC 이사),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 광주 FC 박 홍 석 대표이사 인터뷰

“광주 도시 경쟁력 올라갈 것”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창단을 위한 시민주 공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광주 상무지구 센트럴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광주FC가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성공적인 시민주 공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광주FC 대표이사인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회장과 일문일답.

-광주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의 필요성은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경쟁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시는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도시로서,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프로축구단 창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축구단 창단과 운영과정에서 광주시와 시민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광주시가 축구단에 매년 30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지만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더 많은 외지 관광객이 광주를 찾게 되고, 특히 스포츠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 광주 시민들에게 일체감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오는 12일 시민주 공모 청약의 날을 앞두고 당부할 사항은.

▲시민프로축구단은 광주시에 발맞춰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경쟁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시는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도시로서,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프로축구단 창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홍행기자 redplane@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www.nanopm.com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송정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0200
 익산점 (063) 851-2422

HeartPlus

www.nanop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5분 이내의 응급처치로 HeartPlus 400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www.nanopmtech.co.kr

www.nanopmtech.co.kr